유통업체 바캉스 고객 쟁탈전 '피크'

해외 여행권·상품권 등 사은품 앞다퉈 제공

오토캠핑·물놀이 용품 최대 50% '빅세일'도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번 주말을 전후로 대대적인 '바캉스 마케팅'에 들어간다.

백화점들은 수영복과 선글라스, 스포츠 의류 등 패션 소품을 중심으로 바캉스 특집전을 마련했으며 대형마트들은 텐트 등 오토캠핑용품과 수영복, 물놀이용품, 가전 등을 최고 50%까지 할인해주는 '에누리 대전'을 준비하고 피서객 잡기에 나선다.

백화점과 이마트를 소유한 광주신세계는 백화점의 경우 27~29일 3일 동안 8층 이벤트홀에서 '바캉스 스포츠웨어 용품전'을 열어 헤드 티셔츠를 2만5천원에 판매하고 6층 행사장에서는 '비치수영복 특집전'을 마련, 아레나·엘르 등 유명 브랜드 수영복을 2만5천~6만5천원에 판매한다.

또 유명수제화 샌들대전을 통해 탠디·소다 등의 샌들을 5~10만원에 팔고 31일까지 신세계씨티카드로 38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3박5일 여행권을 증정한다.

이마트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에누리 대기획전'을 통해 수영복 50%, 텐트 10~30%, 파라솔 등 야외용품 10~30%까지 할인 판매하고 BC카드로 10만원이상 구입하면 바캉스 쿨러백을 덤으로 준다.

롯데백화점은 주말 3일동안(27~29일) 유명 화장품 특별전과 선글라스 및 양산 박람회를 마련, 선글라스를 40% 할인 판매하고 매일 선착순 3명에겐 선글라스와 양산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

27일부터 31일에는 8층 영플라자에서 바캉스 특집전을 열고,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7층 행사장에서는 스포츠 바캉스 의류 및 용품대전을 마련했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7일동안 최대 50% 깍아주는 에누리대전을 연다. 수영복을 5만원이상 사면 5천원권 상품권을 주고 텐트 등 캠핑용품을 15만원이상 구입하면 1만원권 상품권을 증정한다.

전자제품매장에선 에어컨을 최대 15만원까지 할인판매하고 에어컨·PDP·LCD·양문형 냉장고·드럼세탁기 등 5대 가전은 전품목 5%, 디지털카메라는 10~15% 할인행사를 한다.

롯데마트 월드컵점도 26일부터 다음달 1일을 바캉스 페스티벌 기간으로 정해 인터크루·에어워크·윙·헬로키티 등의 수영복을 최대 30~50%, 블랙야크·투스카로라 텐트를 10~20% 할인해 판다.

또 크럭스(20~60%), NII(30~50%), 에꼴리에·리틀뱅뱅(50%) 등 일부 의류 브랜드의 할인판매와 함께 355㎖ 12개 들이 하이트 캔맥주를 1만3천200원에 판다.

가장 먼저 25일부터 바캉스대전에 들어간 빅마트는 다음달 7일까지 15일동안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7·15·3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고 100명을 추첨해 빅마트 5천원 상품권을 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광주지역 유통업체들이 이번 바캉스 대전에 여름 영업의 사활을 걸고있다"며 "꼼꼼히 비교해 잘 활용하면 여름상품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아차 '그랜드카니발 케어 서비스' 기아자동차는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그랜드카니발로 출발지에서 인천공항까지 수송해주는 '그랜드카니발 특별 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아차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금호타이어, 中 창춘공장 가동

오늘 준공식

금호타이어는 중국 난징과 텐진에 이어 창춘에 세번째 공장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7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서 왕민 지린성 서기, 이재훈 산자부 차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 등 300여명의 한·중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창춘공장 준공식을 갖는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1억5천여만 달러를 투자, 22만㎡ 규모의 부지에 연간 315만개 생산능력을 갖춘 창춘공장을 완공했다. 창춘공장에서 생산되는 타이어 대부분은 중국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이치자동차의 신차 장착용 타이어로 납품될 예정이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가 중국 북부(창춘)·중부(텐진)·남부(난징) 지역에 생산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선두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세계 '빅5' 타이어 회사로의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에 준공된 창춘공장에 1억8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해 연간 630만개 생산규모의 공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창춘 고신기술산업개발구측과 '창춘공장 제 2기 증설 양해각서'를 교환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목포-광양 고속국도 등 계획대로 추진해야

전남경제인들 촉구

전남지역 경제인들이 지역의 기간교통망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지역 기업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전남지역경제인협회는 26일 "정부가 추진해온 목포-광양, 광주-완도 고속국도와 보성-임성 철도 등 지역 기간교통망 건설사업이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연기·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협회 황금추 회장 등 대표 12명이 25일 감사원,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벌여 목포-광양 고속국도의 경우 국도 2호선과 중복돼 완공시기를 계획된 2012년에서 2018년으로 늦추는 것이 타당하며 광주-완도 고속국도도 국도 13호선과 중복돼 수요 재검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역 기간교통망 건설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감사원은 이밖에도 보성-임성간 철도도 목포-광양 고속국도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며 "정부측에 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SOC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논리로만 보지 말고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한국은행 9월 콜금리 추가 인상"

FT "한국경제 호조 통화정책 지속 가능성" 보도

한국 경제의 호조로 인해 한국은행이 이르면 9월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로 예상보다 높은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면서 한국은행이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한국은행은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에 비해 1.7% 성장해 2005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ABN암로의 도미니크 드와르-프레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은 지금껏 강경한 통화정책을 취해 왔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9월에 콜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공식적인 전망치인 4.5~4.6%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에 한국은행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HSBC의 프레드릭 뉴먼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보다는 자산가격과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금리인상이 자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9급 세무공무원 3,000여명 채용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시행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7·9급 공채를 통해 3천여명의 인력을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 채용인원은 1천998명으로, 이중 1천200명(장애인 구분모집 20명 포함)을 모집하기 위한 채용시험은 오는 9월 16일 실시한다.

광주를 비롯해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리며, 시험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세법개론·회계학 등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30일부터 8월3일까지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중앙인사위원회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r)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관할 광주, 전남북지역 2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채용정보 제공등 홍보에 나섰다. /이종태기자 jtlee@

"현장경영으로 조합원 소득증대 앞장"

이 완 수 남광주 농협 조합장 취임

"농민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해 현장중심의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일 취임한 이완수(65) 남광주농협장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경영을 통해 조합원 모두가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심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농협장은 또 "신용과 경제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마트사업의 흑자전환을 위해 획기적인 경영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주변에 많은 소외계층과 지역주민들을 잊지 않고 봉사하는, 감동적인 농협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16개 지점과 2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남광주농협은 지난 24일 현재 올해 상호금융 대출 목표 6천730억원 중 91%인 6천114억원을 달성했으며, 예수금도 94.5%인 7천36억원에 달할 만큼 거대조합으로 발전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못믿을 쇠고기 판매 음식점들

음식점 5곳중 1곳 원산지 표시 위반

쇠고기 원산지나 한우·육우 등의 종류를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식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526개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상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8개 업소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14곳 ▲종류 허위표시 4곳 ▲원산지·종류 미표시 26곳 등이었고,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식당도 74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속여 판 14개 업소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104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농관원은 지난달 27일 식약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그동안 식약청이 단독으로 진행해온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